

전북교육청, 문해력 강화 팔걸어

교사 전문성 연수· 교재교구 지원· 두리교사제 등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예방하고, 기초문해력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초문해력(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교사 연수를 비롯해 교재·교구 지원, 학생 지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생지도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 1학년 담임교사 중심 기초문해력 지도 연수, 국어과 담임교사 이해 연수, 기초문해력 심화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읽기지도 동아리 지원을 통

해 발음중심·의미중심 지도 방법 연수, 기초문해력 지도방법 연수, 난독학생진단 및 관발연수, 손바닥 그림책 제작 등에 직접 나섰다.

손바닥 그림책은 기초학습 대담 학생의 읽기 쓰기 지도를 위한 교재로 학생과 함께 읽기 글자 써넣기, 색칠하기, 오려붙이기 등 다양한 한글놀이로 글자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함께 '두리교사제'와 '교사대 예비교원 보조교사제'도 눈에 띈다. 두리교사제는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하는 수업 모델로 즉각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학습대립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전주부초, 덕일초, 용와초 등 3교에서 올해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2년간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교사대 학생들을 정규수업에 보조교사로 배치하는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도 기초학습지도, 학습코칭, 학생상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올해 전주 금암초에서는 몽골 국적의 학생 2명이 예비교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를 통해 2개월 만에 한글을 터득했다.

금암초 기초학력 보조교사로 참여했던 전주교과 2학년 학생은 "한국어 능력이 다른 두 아이를 한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시키기 위해 아이

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해보았다"면서 "이번 활동을 하며 예비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관한 나의 능력치를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예비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초등 1학년 한글 책임교육 인식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올해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기초학력 업무담당 장학사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한글교수학습법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정책 만족도 진단

내달 2일까지,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

전북도교육청은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진단하기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만족도 조사는 19일~11월 2일까지 15일 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생과 학부모는 조사대상 전체학교의 교당 1개 학년(초 5학년 중·고 2학년), 교직원은 교원을 비롯해 일반직·교육공무직까지 포함된다.

참여 대상은 학생 4만8,224명, 학부모 5만2,184명, 교직원 2만3,140명 등 총 12만3,548명이다.

조사항목은 23개 영역에 27개(자유 의견 기술 1개 포함) 문항이다. 구체적

으로는 ▲학교안전 ▲놀이감 60 프로젝트 ▲학교폭력 예방 ▲학교혁신 ▲수업혁신 ▲진로진학 교육 ▲민주적 학교문화 ▲학생인권 ▲학교업무 최적화 ▲유아교육 등이다.

조사 참여 방법은 모바일 및 QR코드로 접속해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는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초 5학년과 중·고 2학년으로 한정해 실시하는 만큼 각 학교에서는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내실있는 진단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진안군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은 15일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진안군과 손을 잡았다.

(사진)

이번 협약은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인 '진안형 뉴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북대 LINC+사업단과 진안군이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젝트다. 온라인을 통해 생활정보 제공부터 민원처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진안 지역 316개 마을과 행정기관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기기를 통해 ▲음성과 문자로 생활정보·복지서비스·관광정보 등 제공 ▲원격으로 민원서류 발급과 민원신청 업무처리 ▲화상을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이 직접 상담 ▲각종 정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과 주민 생활불편 신고·접수가 지원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이 단순 정보 습득이나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검토를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청 직장 어린이집 김병준 원장 '국무총리상'

전주비전대학교에서 보육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북도청 직장 어린이집 김병준 원장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김병준 원장은 근로자들의 자녀 보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부모 만족도를 통해 일과 양육에 신뢰를 주며 직원들의 자녀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다.

전주비전대 관계자는 "김병준 원장은 보육과 교육정책을 확립하고 부모에게 자녀 계획에 대한 든든한 협력자로 헌신한 공적으로 대한민국 국무총

리상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병준 원장은 아동학 유아교육학 박사이자, 긍정심리자본 연구자로, '행복한 보육종사자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위해 그간 노력해온 성공교육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김병준 원장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보육과 교육정책을 확립하고 부모에게 자녀 계획에 대한 든든한 협력자로 헌신한 공적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인문학 콘서트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 참신에 인문학 콘서트가 오는 20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도내 거주하는 학부모, 예비교사, 지역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정 청장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경제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30여 년의 기자생활 중 대부분을 문화부에서 근무한 문화전문가로서 현직 언론인 출신으로는 최초로 문화재청장에 임명됐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는 2018년도부터 진행해 온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세부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참신에 인문학 콘서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우영 총장은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교육과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민과의 소통의 시간으로 재학생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www.jmaeil.com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16일 대학본부에서 김동원 총장과 홍순직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기했다.

전북대-전주비전대 인재육성 '맞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가 인재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대학은 지난 16일 대학본부에서 김동원 총장과 홍순직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재 개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에 협력하고,

공동연구와 학술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실험실습 기자재와 연구기기, 도서관과 실습실 등의 시설물 등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과 학생 학점 등도 교류하기로 해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현안 사업 봉사, 전라사업과 연계한 공동 연구과제를 수

행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김동원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인재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양 대학이 손을 맞잡은 것은 어려움을 타개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 양 대학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혁신교육 10년, 그 너머”

2020.10.19. (월) ~ 2020.10.23. (금)
15:00 - 17:30

전북혁신교육 한마당

날 짜	내 용
10.19. 월	1. 여는 마당 - <공감토크> 전북혁신교육 10년, 그 너머 - <세미나토> 전북혁신교육의 미래와 과제
10.20. 화	2.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민주적 자치공동체
10.21. 수	3. 혁신학교 역사기록물과 공간혁신
10.22. 목	4. 전북혁신교육 연대와 협력
10.23. 금	5. 지역교육공동체 포럼 6. 전북혁신교육 정책연구 학술대회

장 소

19~22일 전라북도 교육청 2층 강당
23일 그랜드힐스턴 5층 그레이스홀

대 상

전라북도 교직원, 학부모, 학생, 일반인

참여신청

실시간 온라인중계

유튜브 / 전라북도교육청 / 구독신청